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 컸다”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생각과 갈증이 컸어요.”

영화 '범죄도시'의 강윤성(48) 감독이 오는 19일 신작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을 선보인다. 개봉을 앞두고 얼마 전 급성중수염(맹장염)으로 입원해 언론 사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근 전화로 만난 강 감독은 “수술을 잘 마치고 집에 왔다”면서 “곧 관객과 대화 등 외부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감독은 2017년 '범죄도시'로 비평과 흥행 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주목 받았다. 당시 '범죄도시'는 추석 극장가 최약체로 꼽혔지만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688만명을 불러모으며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년 만에 신작을 선보인 강 감독은 “부담을 갖고 작업하지 않았다. 영화를 잘 만들어야겠다, 관객이 이해하고 민폐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만 집중했다”면서도 “막상 개봉할 때가 되니까 부담이 생긴다”고 웃었다.

'롱 리브 더 킹: 목포영웅'은 목포 지역 조폭 두목 장세출(김래원 분)이 우연한 사고 후 목포 영웅으로 떠오른 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으로,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강 감독은 “‘범죄도시’와는 다른 작품을 찾던 차에 원작 웹툰을 만났다”며 “한 인간의 성장사를 다룬 작품으로, 장세출이 사랑에 빠져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큰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백한 정치 선거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 안에 사랑과 액션, 유머 등 다양한 요소를 다 녹여냈다”고 말했다.

영화는 두 남녀의 멜로에서 출발한다. 장세출은 강단 있는 변호사 강소현(원진아 분)에게 첫눈에 반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

강 감독은 “원작처럼 둘만의 감정에 빨리 진입하고 싶었다”며 “세출이 소현을 사랑하는 마음, 둘만의 애뜻한 느낌을 좀 더 묘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원작을 직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 신작 ‘롱 리브 더 킹’ 건달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기…19일 개봉

접 각색한 그는 “오락영화로 정의하되, 멜로 쪽에 포인트를 줬다”고 했다.

조폭 두목이 한순간에 개과천선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사실 판타지에 가깝다. 강 감독도 “그런 점을 관객이 수긍할 수 있게 장세출을 서민 등쳐먹는 나쁜 건달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치 흥감동처럼 정의의 편에서 있는 착한 건달로 그렸다”고 설명했다.

극 중 선거 유세 등 선거 과정은 꽤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현실정치가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강 감독은 그러나 “현 상황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러 빨간 복장에 ‘우리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서 “처음부터 정치색이나 이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세상 좋은 사람을 꿈꾸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라며 “이 영화를 통해 내 주변에도 이런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원작에 없던 ‘목포 영웅’이라는 부제를 붙인 이유에 대해선 “장세출이 실질적으

로 목포 영웅이 되는 과정을 그리다 보니 달았다”면서 “롱 리브 더 킹(황제 폐하 만세)이라는 말이 한국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보편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원작을 존중해 그대로 가져왔다”고 했다.

강 감독과 작업해본 배우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를 칭찬한다. 뛰어난 연출 능력은 물론 배우들과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보조출연자들도 일일이다 행길 정도로 훌륭한 성품을 지녀서란다. 그 덕분에 ‘롱 리브 더 킹’에서도 조연 한명 한명의 캐릭터가 모두 살아있다. ‘범죄도시’ 배우들이 이번 작품에서 조연이나 카메오로 참여한 것도 강 감독의 신망 덕분이다. 처음 호흡을 맞춘 김래원조차 강 감독 차기작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냈을 정도.

강 감독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시나리오나 콘티에 의존하기보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열린 연출 방식을 고집한다.

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찍어야 하는 그 순간이고, 그때의 에너지가 중요하다”면서 “그 때문에 현장에서 배우들의 분위기와 호흡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라딘’ 박스오피스 흥행 역주행…역대 뮤지컬 영화 5위

디즈니 실사 영화 ‘알라딘’이 흥겨운 음악과 춤을 앞세워 흥행 역주행에 시동을 걸었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토요일인 전날 41만5,334명을 불러들여 누적 관객 350만3,434명을 기록했다.

배급사 월트디즈니 코리아는 “이날 중 뮤지컬 영화 흥행작 ‘라라랜드’(2016)의 최종 관객 수 360만명을 뛰어넘고 400만 관객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국내 역대 개봉 뮤지컬 영화 중 ‘겨울왕국’(2014), ‘레미제라블’(2012), ‘미녀와 야수’(2017), ‘람마미아!’(2008)에 이어 다섯 번째 흥행 순위에 오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 2위로 출발한 ‘알라딘’은 1위를 달리다 ‘기생충’이 개봉하자 다시 2위로, 그리고 3위로 밀려났다. 그러다 입소문을 타고 다시 2위로 올라섰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예매율은 40.1%로 ‘기생충’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좌석판매율도 55.6%로 1위를 달린다.

아울러 ‘돈’과 ‘악인전’을 제치고 올해 국내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 5위에 올



랐으며 지난해 개봉한 ‘보헤미안 랍소디’보다 더 빠른 속도로 300만 관객을 넘었다.

‘알라딘’이 이처럼 흥행 뒷심을 발휘하는 데는 신나는 음악과 춤 덕분에 퍼진 관객 입소문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1992년 개봉한 애니메이션을 27년 만에 실사 영화로 만든 ‘알라딘’은 흥겨운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했다.

알라딘 역의 메나 마수드, 재스민 역의 나오미 스콧은 빼어난 춤과 노래 실력을 뽐낸다. 특히 월 스미스가 연기한

지니가 압권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프렌드 라이크 미’(Friend Like Me)와 ‘어 홀 뉴 월드’(A Whole New World)등 기존 애니메이션의 명곡들과 재스민 공주 역의 나오미 스콧이 부르는 ‘스피치리스’(Speechless)와 같은 새로운 곡들이 잘 어우러져 따라부르고 싶은 노래들이 귀를 즐겁게 한다.

특히 4DX관 상영은 인기가 뜨겁다.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마법의 양탄자를 탄 듯한 모션체어 효과를 느낀다는 점 때문에 CGV의 4DX관 상영은 늦은 밤을 제외하고는 연일 매진을 기록한다. 4DX로 ‘알라딘’을 본 관객들은 “디즈니랜드를 간접 체험하는 느낌이다”는 평까지 내놓았다.

기존 명곡의 익숙함과 영화의 인기로 합입어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달린다. 벅스에서는 ‘스피치리스’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서운 흥행 뒷심을 발휘하는 ‘알라딘’이 지난해 ‘보헤미안 랍소디’가 칸의 명곡을 음원 차트에 올려놓으며 영화 안팎으로 ‘퀸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기세를 이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장재인과 다른 여성분께 사과”

‘양다리 논란’ 남태현, SNS 통해 잘못 시인

연예 도중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논란이 인 가수 남태현(25)이 잘못을 시인했다. 남태현은 8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입장문에서 “이번 일로 인하여 상처받은 신 장애인 씨와 다른 여성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팬분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제 불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전날 가수 장재인(28)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과 다른 여성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남태현이 한 번에 두 여성과 교제했다고 비판했다. 장재인과 남태현은 tvN 예능 ‘작업실’ 출연을 계기로 실제 연인이 됐다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남태현은 장재인의 공개비판 직후 SNS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1시간 만에 삭제해 논란을 키웠다. 잡음이 커지자 일부 팬들은 남태현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연극·뮤지컬 갤러리 이용자들은 남태현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메피스토’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이와 별개로 tvN은 ‘작업실’ 남은 분량에서 두 사람의 출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트와이스 ‘왓 이즈 러브?’ 유튜브 조회수 3억뷰 돌파

그룹 트와이스의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 뮤직비디오가 8일 오전 4시 35분께 유튜브 3억뷰를 돌파했다. 지난해 4월 9일 공개된 미니 5집 타이틀곡 ‘왓 이즈 러브?’는 사랑이 궁금한 소녀의 마음을 통통 튀는 밝은 멜로디에 녹여낸 곡이다. JYP 수장 박진영이 작사·작곡했다.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부터 최신곡 ‘팬시’(FANCY)까지 10곡 연속 1억뷰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TT’, ‘라이키’(LIKEY), ‘치어업’(CHEER UP), ‘우아하게’, ‘왓 이즈 러브?’까지 3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는 5편이다.

트와이스는 앞으로 북남미 4개 도시를 포함해 세계 9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으로 팬들을 만난다. /연합뉴스

오늘의 TV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재)
7	50 인간극장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00 로보카 폴리 30 뽀롱뽀롱 뽀로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수상한 장모	00 당동맹 유치원 10 두근두근 방방 45 최고다! 호기심딱지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마사와 곰 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다큐 공감(재) 50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	00 퍼펙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테마기행(재)
12	00 KBS 뉴스12		00 12MBC 뉴스 25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00 EBS 정오뉴스 10 극한직업 스페셜
1	00 문화산책 50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세상을 걷다스페셜		25 살맛나는 이야기 미담 55 닥터 365	00 다큐 오늘 10 최고의 요리비결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0 꼬마버스 타요(재) 45 로보카 폴리(재)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30 뽀롱뽀롱 뽀로로 45 출동! 슈퍼왕스	00 출동! 호기심딱지 40 두근두근 방방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	25 뽀롱뽀로모두야 놀자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00 EBS 뉴스 20 명탐정 피트 30 페파 피그(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25 빠샤 메가드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55 세상에 이런일이(재)	00 EBS 뉴스 20 명탐정 피트 30 페파 피그(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법률 365	00 특!특! 보니 하니 25 화산섬의 비밀 45 우리 몸 토크쇼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TV블로그 쏘자락	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30 생방송 판다다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뉴스 35 KBC 8뉴스 55 생활의 달인	00 갤럭시 프로젝트 30 아기 동물 귀여워 40 세계테마기행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9	00 KBS 뉴스 9				45 아빠 찾아 삼만리
10	00 가요무대	00 퍼펙트	05 스트레이트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	10 안녕하세요	10 국민의 일꾼	10 동상이몽2	55 지식의 기쁨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세상을 걷다 스페셜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검법남녀 시즌2(재)	30 나이트라인	45 지식채널e 50 세계의 드라마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6월 10일 (음력 5월 8일)
	48년생 시비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60년생 오래된 물건도 다 쓰일 때가 있다. 72년생 현상유지에 주력함이 이롭다. 84년생 명분과 실리를 함께 얻는다.			42년생 내 주머니 속의 돈만 내 것이다. 54년생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라. 66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78년생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하라.
	49년생 다소 결과가 실망스럽다. 61년생 믿었던 자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다. 73년생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85년생 작은 병이 큰 병 된다.			43년생 할 말은 하고 살자. 55년생 더 이상의 방황은 없어야 한다. 67년생 숨겨둔 능력을 펼칠 때가 왔다. 79년생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하고 있다.
	50년생 너그럽게 용서하라. 62년생 합리적이고 냉정해져야 한다. 74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86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라.			44년생 원래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56년생 허세를 부리면 낭패를 보겠다. 68년생 죄중우물 순탄치 못한 날이다. 80년생 억울한 구설수로 힘들어 한다.
	51년생 믿을 것은 피붙이 뿐이다. 63년생 주변 사람 모두 내편이다. 75년생 시작부터 힘든 현실 때문에 한숨만 나온다. 87년생 역시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45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57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69년생 저 먹자니 싫고 남 주자니 아깝다. 81년생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
	52년생 참고 또 참으면 불행이 피해간다. 64년생 하늘은 푸르고 대지는 평화롭다. 76년생 욕심을 줄이고 아량을 베풀어라. 88년생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			46년생 참고 끝에 악수 툄다. 5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70년생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한다. 82년생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41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53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65년생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77년생 모처럼 찾았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47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59년생 배운 만큼 돌려 받는다. 71년생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83년생 행운의 여신이 함께 하는 길일이다.